

윤홍길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에 나타난 언어·문체의 변화와 그 효용성*

이 태 영(전북대)

〈목 차〉

1. 서론
2. 지문의 언어와 문체적 특징
3. 대화문 중심의 소설 쓰기
4. 고향의 언어와 그 효용성
5. 결론

1. 서론

「장마」,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완장」 등으로 잘 알려진 소설가 윤홍길은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리에서 태어나 익산에서 성장하였다. 초기와 중기 소설에서는 표준어로 된 지문 중심의 소설을 써오다가 후기에 이르러 방언을 포함한 일상어를 중심으로 소설을 쓰기에 이른다. 「황혼의 집」, 「제식 혼련 변천 약사」, 「빙청과 심홍」, 「날개 또는 수갑」, 「직선과 곡선」, 「무제」, 「비늘」, 「꿈꾸는 자의 나성」 등은 지문과 대화문이 표준어만으로 이루어지고

* 이 논문은 국어문학회 2008년도 춘계 전국학술발표대회에서 주제 발표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하였다. 심사를 맡아주시고 고칠 점을 지적하여 주신 심사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있다. 「장마」, 「양」,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등은 지문이 표준어로, 대화문은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초기 소설에서는 지문의 양이 많고 대화문의 양이 적은 게 특징이다. 그러나 후기 소설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에서는 지문은 표준어와 일상어로, 대화문은 방언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화문의 양이 크게 증가한다. 『소라단 가는 길』에서는 지문은 일상어로, 대화문은 방언으로 이루어지는 파격적인 언어 사용의 변모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소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은 1993년에 발표되어 97년에 현대문학에서 소설집으로 나온 작품이다. 여기서 대화체는 완전한 방언으로, 지문은 일상어와 방언이 많이 포함되어 쓰이게 되는데, 이 소설에서부터 윤희길 소설은 표준어 중심이 아닌 일상어 중심의 언어적 특징을 갖게 되었다. 2004년에 발표한 『소라단 가는 길』에 이르러서는 지문과 대화문을 통틀어 일상어로 소설을 쓰고 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은 저자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완장」의 두 주인공, 임종술과 김부윌을 다시 내세워 세기말의 우리 사회의 세태를 묘사한 다소 해학적인 소설이다. 사이버 종교의 종말론이 소설의 주된 내용이지만, 두 주인공의 대화를 중심으로 종교, 학벌, 재물과 같은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있다.¹⁾ 이 소설은 1권이 309쪽, 2권이 342쪽으로 되어 있다. 연구를 위해 입력한 전자 자료로는 약 11만 어절이다. 이 가운데 지문은 약 7만 1천 어절이고, 대화문은 약 3만 9천 어절이다.

본 논문에서는 윤희길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에 나타난 언어와 문체의 특징 중 주로 지문과 대화문에 나타난 방언과 일상어를 살펴서 윤희길의 언어적 변모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와 그 효용성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지문의 언어와 문체적 특징

작가는 자신만의 문체를 가진다. 표준어로만 글을 쓰는 작가가 있고, 일상어와 방언을 많이 쓰는 작가가 있다. 전라 방언의 경우, 채만식처럼 당시의

1)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주인공들은 제법 몸집이 크고 힘이 좋은 편이지만 머리가 상당히 모자라는 편이다. 제 아무리 똑똑한 척 해봤자 번번이 손해만 본다. 그들이 벌이는 엉뚱한 행각이 각박해진 오늘날의 세태와 무뎠쳐 불화를 낳음으로써 해학적 효과를 기대했다.’고 말한다.

시대상황이 표준어와 방언의 구별이 애매하였기 때문에 독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어법으로 소설을 쓴 작가가 있고, 조정래처럼 어휘를 단순화시켜서 이야기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작가가 있으며, 최명희처럼 언어의 기능을 의식하여 의도적으로 어휘를 다양하게 구사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작가가 있다. 충청 방언의 경우, 이문구는 언어를 의도적으로 등장인물의 특성에 맞게 개조하여 쓰는 경우도 있다.

작가는 자신만의 문체를 통하여 등장인물의 성격을 창조해내고 소설의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지문의 경우, 표준어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방언과 일상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문에서 작가가 등장인물을 3인칭으로 보고 해설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시점에서 등장인물의 말투로 해설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문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을 통하여 작가가 의도하는 언어의 효용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1. 일상성을 지향하는 태도

이 작품에서는 표준어라 하더라도 고유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전통적 정서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문이 주는 고루함을 벗어나 일상성에 가깝게 접근하려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²⁾ 다음과 같은 고유어는 윤홍길보다 이전 세대의 작가에게서 볼 수 있는 고유어들이다. 그러므로 윤홍길은 의도적으로 한자어보다는 고유어 어휘를 많이 쓰는 작가로 분류할 수 있다.³⁾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고유어는 다음과 같다. 모두 표준어로 등재되어 있다.

는적는적하다, 배돌다, 이악스럽다, 잡살뱅이, 물넉(물가), 더쟁이, 바특하다, 엇서다, 치신사납다, 통바리, 때꾼하다, 바장이다, 농치다, 훗훗하다, 뒤발하다, 민뜻하다, 불뚝성, 들그서내다, 안반짝, 앵하다(애매하다), 허구리, 되알지다, 끌

2) <표준국어대사전>에 윤홍길의 작품에서 추출된 용례가 약 1,000 번 정도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윤홍길 소설의 문학성 뿐만 아니라 문장력, 어휘력을 높이 평가한 까닭이다.

3) 윤홍길은 고유어를 많이 쓰는 작가로 분류되며, 따라서 홍명희, 채만식, 최명희 등의 계열에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탕, 깔축없다, 음충맞다, 엉너리, 미리감치, 바루다, 밀두리콧두리, 종주먹, 통노구, 거니, 너나들이하다, 포실하다, 지다위, 감때사납다, 양감질, 재우치다, 시건드러지다, 매갈잇간, 버성기다, 문존하다, 노라리, 검질기다, 옥물다, 덧게비

‘미리감치, 부지거쳐’는 윤홍길의 작품에서 용례를 따오면서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린 것이다. ‘미리감치’의 경우, 주로 ‘일찌감치’가 일반적인데 윤홍길은 이를 변용하여 ‘미리’라는 부사로 바꾸어 쓴 것이다.

윤홍길은 의성어와 의태어의 경우 소위 첩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장면의 구체성을 묘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작가들도 상황을 정밀하고 현장감 있게 묘사하기 위하여 첩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 소설의 지문에서도 표준어, 방언, 개인어를 가리지 않고 장면의 묘사에 어울리면 다양한 첩어를 사용하고 있다.

느럭느럭(표준어), 아등바등(표준어), 편둥편둥(표준어), 꼬작꼬작, 씨익씨익(표준어), 뚜릿뚜릿, 얼썩절썩(표준어), 더금더금(표준어), 이왈저왈, 지범지범(표준어)

돈 안 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세 안 지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 더럽게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욕된 흔적을 깨끗이 지우기 위해서는 역시 그 방법이 가장 좋겠다는 단순한 생각 때문이었다.

— 윤홍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1997, 1, 32

속담과 관용구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대화체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윤홍길의 소설에서는 지문에서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속담과 관용구를 지문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등장인물이 하는 대화문과 같은 효과를 얻어 지문에서도 일상성을 얻기 위한 방책인 것이다. 대화문에 사용된 속담과 관용구와 비교해보면 약간의 표준어와 방언 사용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

꼬치에서 꽃감 빼먹듯, 조리전에서 체겟돈을 내서라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호강에 미역을 감기기로, 늦게 배운 도둑이 날새는 줄 모르더라고, 아님 밤중에 흥두께 격으로, 호강에 잣죽 쑤는 소리로, 상추밭에 똥싼 강아지 잡도리

하듯, 상추밭에 똥싼 개 꼴로, 풀방구리 쥐 드나들듯, 넘을수록 태산이요 건널수록 장강이었다, 식은죽 가장자리 둘러먹기, 늙은 이빨로 도토리묵 다루기, 떡 찌놓고 시루 엮은 꼬락서니, 똥편 년이 바람독에 가서 서는 식으로, 박박한 년은 보쌈을 당해도 으레 용천뱅이한테 당하게 마련이었다., 팔자 도망은 독 안에 들어도 못 한다더니만,, 삼베바지에 방귀 새듯, 죽는 년이 밀구멍 감출 여가가 어디 있겠는가, 동헌에서 곤장 맞고 집구석에 돌아와 계집 패듯, 개구리 수염이나 나면 받을까말까 한 외상을, 배부른 강아지 시래기 다루듯, 재수없는 포수는 꿈을 잡아도 응답이 없다더니만, 호강에 잣죽이라더니만, 자빠진 소 올라타지요 호박에 대침 지르기만큼이나 손쉬운 노릇, 제 버릇 개 못 준다

막가는 판이라고 요 근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겁 없이 대들곤 하는 계집의 독살에 질려 둘째가라면 억울해하던 그 우난스런 성깔 다 까먹고는 보리홍년 풀떼죽처럼 멀겁게 풀려버린 종술이었다.

— 윤홍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1997, 1, 11

방언은 일상어 중의 하나이다.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의 고유한 방언을 구사한다. 이 소설의 지문에서는 방언을 일상어로 보고 다른 일상어와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즉 유행하던 외래어, 준말, 비속어를 지문에서 일상어로서 사용하고 있다. 비속어의 경우 직설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화자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일상어의 특징이다. 지문에서 방언을 포함한 일상어를 거침없이 사용하는 이유는 작자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어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 독자와 소통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방책으로 보인다.

일상어·방언 : 술참이, 노상, 달팍, 난작, 흠처투성이, 암냥해서, 소견구멍, 똥강아지, 지천꾸러기, 파토내기, 먹고대학, 먹고대학생, 먹고땡, 고드름귀신, 풍신, 찌력소, 말종인간, 엉똥깁똥하다, 퍼자다, 코나발, 낮박살, 화냥잡것, 겁덩어리, 부아반이, 떡쫓가리, 외약눈, 혼털뱅이, 섯다판, 삼팔 따라지, 회까닥,

4) 표준어에 대응하는 말은 일상어이다. 즉 표준어는 인위적이며 '특별한' 언어이고, 일상어는 방언, 유행어, 비속어, 관용표현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일상적' 언어를 말하기 때문에 일상과 비일상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서로 대응된다.(이태영, 2006:32참조)

벗어배기, 대붓독, 달창이순가락, 말쌈지, 뜨더구판, 칼섯바닥, 걸판지다(걸다), 들이당장(갑자기), 속새로(속으로), 짤떡짤떡(집적집적), 콩짜(강짜, 강쌈), 바뀐치기하다(바꾸다), 판속(판국), 각놀다(겉놀다), 폼쳐먹다(숨기다), 낮박살(면박), 대붓독(물독), 따복따복(차곡차곡, 차근차근), 맘보자기(마음보), 먹고 대학생, 벗어배기(대머리), 부아반이, 암냥하다, 얼끔덜끔, 지천꾸러기,

준말 : 백췌(백주에), 애크(애매한), 답다(들입다), 췌러빠지다(게을러빠지다),

비속어 : 곱쟁이, 주둥이, 상관때기(얼굴), 늙다리, 비렁뱅이, 소가지, 똥고집, 짓거리, 옆댕이, 귀싸대기, 뺏구레, 개차반, 눈쭈다리, 똥배짱 부리다, 꼬랑지를 내리다, 마빡, 턱주거리, 주둥이, 유식쟁이, 농투성이, 무식쟁이, 논다니, 푼숫덩어리 마누라, 마누라쟁이,

박 장로가 벗어배기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웃음을 참지 못했다.

- 윤홍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1997, 1, 54

아직도 잠에서 온전히 깨어나지 못한 부월은 정신나간 목사가 백췌 애크한저를 지목하고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단정했다.

- 윤홍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1997, 1, 27

2.2. 지문의 구어적 특징

작가는 지문에서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이용하여 서술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지문을 벗어나 일상적인 대화체를 지문에도 많이 삽입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적인 묘사를 통하여 일상성을 획득하려는 작가의 의도라 할 수 있다.

2.2.1. 등장인물의 시점에서 서술

지문의 서술은 3인칭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지문에 인용부호가 없이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등장인물을 부각시키면서 마치 대화를 하고 있는 듯한 현장감을 주고 있다.

다음에 제시한 지문은 마치 등장인물인 김부월이 직접 말하는 듯한 문체로 쓰고 있다. 실제로 밑줄 친 곳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언의 화자가 사용하는 지역 방언인 ‘씨월거리고 지빠졌는’과 같은 방언이 지문에서도 그대로 쓰인다. 이러한 부분이 매우 많은 것이 이 소설의 문체적 특징이다.

“(김부월)얼씨구, 공자님 멘전에다 대고 하날천 따지, 허네.”

유리대롱같이 속이 뻥히 다 보이는 수작이었다. 김부월이 누구도 저 자신의 삼십여 평생에 걸친 신산스런 인생공부를 통해서 그 정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 쫘 이미 입에서 쉼내가 물씬거리도록 실컷 터득하고 난 그니였다. 대문에 마치 똥무더기에 주저앉아서 매화타령 흥얼거리듯 등신스레 한유한 소리나 씨월거리고 지빠졌는 종술의 화상이 그렇게 밍살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다.

2.2.2. 등장인물이 지문에 등장함

지문에 독백, 지문과 같은 대화문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작중인물이 독백하는 경우로 자연스럽게 방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 예문은 서술자가 등장인물인 임종술의 행위를 서술하다가 갑자기 임종술의 입을 빌려 독백을 하게 한다. 다시 서술자는 임종술의 행위를 서술한다. 이러한 과정이 하나의 의미 단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작품에서 지문은 단순히 작가가 서술하는 차원이 아니라, 등장인물을 가담시켜 작가와 등장인물이 함께 지문을 써나가는 방식인 것이다. 작가는 지문의 구어적 태도를 유지하여 독자로 하여금 사실감과 현장감을 갖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⁵⁾ 대부분 지문의 독백이 단락을 나누어 전개되는데 비해서 이 작품에서는 단락을 나누어 독백임을 구별하지 않고 한 문단의 내용으로 서술하고 있다.

다음 차례로 종술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 사장 남편의 보이지 않는

5) 최명희의 <혼불>에서도 이러한 지문이 많이 발견된다. 그렇지만 효원은 꿈쩍도 하지 않고 기어이 견디어 내고 있다. 그대로 앉아서 죽어 버리기도 할 태세다. 그녀는 파랗게 질린 채 떨고 있었다. 그만큼 분한 심정에 사무쳤던 것이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리라. 내 이 자리에서 꼭 고꾸라져 죽으리라. 네가 나를 어찌 보고……. 이미 새벽을 맞이하는 대숲의 바람 소리가 술렁이며 어둠을 털어내고 있는데도 효원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면상을 겨냥해 소리없는 욱설을 차돌멩이같이 날렸다. 미친놈이 따로 없었다. 그놈이 바로 미친놈이었다. 봉알 두 쪽 버젓이 달린 사나 대장부가 그 나이 먹드락 자존심이 뭔지도 몰르고 살았드란 말이냐. 차라리 셋바다이라도 작신 깨물고 죽거라, 죽어. 종술은 시한부 종말론에 마누라 빼앗긴 체 느닷없이 오쟁이를 저버린 그 사내의 신세가 한심하다 못해 불쌍하게마저 느껴져 눈앞에 있다면 당장 외락 끌어안아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 윤홍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1997, 2, 239

그 순간 거의 동시에 출발한 종술의 시선과 부월의 시선이 중간에서 딱 맞부딪쳤다. 여자의 말없는 시선이 남자를 상대로 암암리에 이렇게 사주하고 있었다. 그러잖아도 우리 둘이서만 죽기가 억울허든 책인디 마침맞게 잘 만났네. 어찌피 죽는 마당에 저 구성자리없는 벗어배기 영감 타악허니 썰려잡어서 저승질 동무나 삼어빨고 말드라고.

- 윤홍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1997, 1, 22

종술은 더 이상 군말 없이 하 목사의 면전에서 선선히 물러나기 시작했다. 선지자를 등진 채 고개를 똑바로 하고 앞을 향해 걸어나가면서도 그의 마음 속에 감추인 또 다른 고개 하나가 뒤쪽을 뒹 돌아다보았다. 마음 소의 또다른 시선이 하 목사를 무섭게 썰려보았다. 마음 속의 또다른 입이 목청껏 외치고 있었다. 누가 이기는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 순사기꾼놈아!

- 윤홍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1997, 2, 243

또한 지문과 지문 사이에 하나의 문장으로 ‘독백’을 강조하면서 쓰는 예가 많다. 대체로 두 주인공의 독백인데 방언이 많이 섞인 대화체의 독백을 하나의 단락으로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장면의 현장감을 강화하기 위한 기법으로 보인다. 대체로 단락은 이야기의 의미 묶음인데 하나의 대화를 한 단락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 인물의 성격이나 현장성을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씩고 자빠졌네.

한 차례만이 아니었다. 근엄한 목사와 장로가 곁에 있는 것도 전혀 아랑곳없이 부월은 같은 욱설을 몇 차례나 되풀이했다.

씩고 자빠졌네.

- 윤홍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1997, 1, 196

2.2.3. 대화체의 인용문 사용

지문에 인용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간접화법을 위한 표준적인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화법과 같이 대화체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인용부호가 없이 직접 인용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용문의 사용은 지문을 구어적인 성격으로 만들어가는 작자의 의도라 할 수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오늘이 바로 내년 제삿날인 줄 알라는,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며, 아직은 그럴 만한 실력도 없는 돌팔이 교인 주체에 간증이 어디 당키나 한 수작이냐는, 그게 뭐가 잘못이냐는 이야기였다, 갈라서네 어찌네였다

2.2.4. 일상어구 사용

대화문에서 쓰는 일상적인 구어체의 어구를 지문에서 아주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다. 이는 지문을 통하여 작자와 등장인물과 독자가 사건의 현장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효과를 노리면서 작가가 의도하는 일상적인 어법을 구사하려는 특징을 보인다. 일상어구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놈들, 모든 잡것들을, 임종술이란 작자하고, 끄해봤자, 때빼고 광넨, 비까 번쩍, 미친 척하고, 똑 소리가 나게, 듣도 보도 못한, 콩나물 대가리, 젓가락 장단, 니나노 가락, 밀도끝도없이, 임종술은 정말이지 환장할 지경이었다, 소분 지 일에 불과하였다, 그는 생짜로 속병을 앓고 있었다, 미친 척하다, 가늘게 먹고 가는 똥 누려는 선량한 인간을, 밤송이로 무엇을 까라면 꼼짝없이 까는 시늬, 남편이라고 덜렁 하나 있다는 풍신이, 까락까락 따지는 법 전혀 없이, 똥 싸놓고 매화타령이었다. 때빼고 광넨 모습으로 뼈까번쩍 요란도 하게, 도적 연놈 잡도리하듯, 개구리 수염 난 다음에나, 영치기 영차 용을 쓰는 중이었다, 노래기 회쳐먹게 타고난 비위 치레를 하느라고, 공갈에 꺼뻑 야코가 죽는 기색, 여전히 웃기는 팔도강산이라는 생각뿐이었다, 고향이고 나밭이고, 도가 터버린

표준어를 사용하는 정상적인 지문이라면 구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고향이고 나발이고’, ‘때빼고 광넌’과 같은 표현을 하기 어렵다. 윤희길은 이 소설에서부터 파격적으로 구어체적 문체를 구사하고 있다.

이미 사랑에도 금이 가고 금의환향의 꿈도 깨져버린 중반 세월은 서울이란 거대한 감옥 안에 갇혀 오도가도 못 하는 신세인 채 원수야 악수야 서로 으르렁 대며 밤낮없이 싸우느라 고향이고 나발이고 전혀 안중에도 없었다.

— 윤희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1997, 1, 17

임종술과 김부월 부부가 자그마치 십 년 가까이나 버르면서 꿈꿔온 귀향은 결코 그처럼 피뢰죄한 것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때빼고 광넌 모습으로 빠까번쩍 요란도 하게 고향땅을 다시 밟을 작정이었다.

— 윤희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1997, 1, 251

판소리와 유행가를 삽입하여 일상어적인 어법을 보이고 있다. 2권 10장 3절을 보면 판소리 춘향가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고, 지문에서도 유행가를 삽입하여 마치 대화를 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노래라기보다는 대화체의 독백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아무리 보아도 내 낭군이였다. 이리 보아도 내 낭군, 저리 보아도 내 낭군이였다. 앉혀놓고 보아도 내 낭군이이고 세워놓고 보아도 역시 내 낭군이였다.

— 윤희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1997, 2, 225

마누라의 능란한 변통수에 종술은 박수라도 보내고 싶었다. 역시 텅굴 자리 보고 씨름판 나가고 누울 자리 보고 발 뺨을 줄 아는 여편네였다. 그러게 내 마누라였다. 여보오, 영가암. 왜불러.

“(택시 기사) 당신들 딸 찾는 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잔소리 말고 얼른 대절료나 내시요!”

뒤뜰에 매여놓은 뺨아리 한 쌍을 보았소. 보았지.

“(김부월) 안죽도 내 말귀를 못 알아듣겠소? 눈에다 통짜로 집어넣어도 안아풀 고명딸 도적맞고 눈같이 확 뒤집힌 애비가 무신 짓인들 못 저질렀소? (중략)”

으쌌소. 이 뭍이 늙어서 몸보신혈라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 윤홍길,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1997, 2, 256

3. 대화문 중심의 소설 쓰기

윤홍길의 소설은 전체적으로 표준어를 주로 사용하고 지문이 아주 많은 특징을 보인다. 이는 묘사와 서술을 중심으로 하는 소설 쓰기인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이전의 소설과 달리 대화문에서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지문보다는 대화문이 월등하게 많아 대화문을 통하여 등장인물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는 소설이다. 주인공인 ‘김부월’과 ‘임종술’의 대화의 횟수가 각각 900여 차례에 이를 정도이다. 이러한 특징은 윤홍길의 소설이 서술 중심에서 대화 중심으로, 즉 구어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표준어 중심의 서술에서 일상어 중심의 대화체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소설의 제7장 ‘돈 놓고 돈 먹기’ 제1절은 지문이 하나도 없고 대화체로만 되어 있다. 지문을 전혀 쓰지 않은 절을 만든 것은 작자가 해설하는 지문보다는 등장인물들이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도록 하여 그 대화만으로도 소설이 되게끔 의도한 것이다. 이는 매우 의도적인 발상이다.

2003년도 작품인 『소라단 가는 길』은 연작 소설로 11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1편 「귀향길」과 11편 「상경길」은 같은 작품 안에 있는 다른 단편과는 다르게 대화체와 지문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일상적인 말투로 정리하고 있으며 완전한 구어체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편에서는 인용부호를 쓰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대화체와 지문으로 나누는 소설의 격식을 깨뜨리고 완전한 구어체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이태영, 2006:39참조)

이 작품의 두 주인공인 김부월과 임종술의 언어는 방언과 비속어로 되어 있다. 이는 전형적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인물을 설정하는 데 쓰이고 있는 방식이다. 이미 ‘천하태평춘’의 윤직원 영감, ‘혼불’의 옹구네, ‘태백산맥’의 염상구, ‘토지’의 임이네 등은 작중에서 악역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이들이 구사하는 언어의 특징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숙담, 관용구, 일상어구 : 흥시감 깨물다가 이빨 뿌러질 고평우 그것말에, 구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니 낮바데기 한번 총천연색 칠십미리 씨네마스콤포다, 니 똥 한번 굶다. 칠십 미리 총천연색 씨네마스콤포다, 깨구락지 턱쉬엄 난 연후에나 밝혀질, 국수 말어내는 솜씨로 수제비는 못 뜨것소?, 마 캐는 중 맨치로, 비는 장수 모가지 못 친다고, 울다가 웃으면은 똥구녕에 노랑털 난다, 화무는 십일홍이고 권불십년이라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오는 방맹이에 가는 흥두께고 뒷박으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삶은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갈, 사또 뜬 뒤에 나발 불기고 죽은 자석 봉알 만지기여, 재수 좋은 과수택은 앓어도 꼭 요강꼭지 우에만 앓고 재수없는 과수택은 봉숫방에 누워도 꼭 고자 옆에만 눕는다드니만, 목매란 놈이 시암 파드라고, 개도 나갈 구녕 보고 쫓는 뱀이라는디, 죄는 개천 도채비란 놈이 짓고 날베락은 당산 고목낭구가 맞는다는 옛말도 못 들어봤디아?, 큰 괴기는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 뱀이여, 흥시감 먹다가 이빨 뿌러질

4. 고향의 언어와 그 효용성

작품의 두 주인공인 임종술과 김부월은 전라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사용하는 방언은 전북 정읍 방언이다. 성장기를 전북 익산에서 보낸 작가가 왜 굳이 태어난 고향인 정읍 방언을 지향하고 있을까? 윤희길의 소설의 대부분은 작가의 유년 시절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또한 그 주제와 더불어 지향하는 바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다. 이 소설에서도 임종술의 어머니는 ‘운암택’으로, 김부월의 양어머니는 ‘태인택’으로 설정하였다. ‘운암’은 전북 임실과 정읍이 맞닿아 있는 곳이다. ‘태인’은 전북 정읍군에 소속된 면이다. 따라서 이미 전북 정읍을 생각하고 쓴 소설로 보인다.

작가는 고향을 ‘화해의 장소’, ‘용서의 장소’로 그리고 있다. 따라서 고향의 방언인 정읍 방언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개인과 조상의 고향에 대한 원초적 본능, 자기 언어의 원형을 찾기 위한 작업, 고향을 그리워하는 작가의 무의식적인 세계가 표현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⁸⁾

8) 윤희길은 이 소설집에 실린 ‘작가의 말’에서 바보형의 인물을 등장시키는 이유에 대해 ‘아마도 한국인의 원형질을 그런 유형에서 찾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노력이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4.1. 고향의 언어 사용

4.1.1. 정읍 방언의 종결어미 ‘-라우, -다요?, -ㄸ디여?’

이 작품에서는 전남과 접촉지역에서 주로 쓰이는 종결어미, 또는 종결어미 구성체인 ‘-라우, -ㄸ디여?, -다요?’ 등이 많이 쓰인다. ‘-라우’는 ‘해요체’의 상대존대법의 종결어미인데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쓰이고 있다. ‘-다요?’는 전라도의 의문형에서 많이 보이는 ‘-대요?’의 방언형이라 할 수 있다. ‘-ㄸ디여?’는 ‘합쇼체’ 상대존대법인 ‘-ㄸ디까?’의 방언형이다.⁹⁾

“(김부월) 즈잖으신 으른은 즈잖게 궤시는 게 마땅헌 도리 아니졌어라우.”
- 윤홍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1997, 1, 23

“(임종술) 그런디 지가 말어서 헐 일은 뭇이다요?”
- 윤홍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1997, 1, 53

“(김부월)시상천지 높고 핵교 나온 유식쟁이 잘난 예펜네들만 날날이 골라서 연설허야 된다는 무신 뱀이라도 있답디여?”
- 윤홍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1997, 2, 30

정읍 출신 소설가 신경숙의 소설에서도 전북 정읍 방언의 종결어미가 아주 다양하게 구사되고 있는데, ‘했어라우, 사팔뜨기여라, 살았지라’에서 보는 것처럼 전남 방언의 영향으로 쓰이는 해요체의 ‘-라우’가 발음이 약화되어 ‘-라’로도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남 방언의 영향이 정읍에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넌 당신한테 거짓말을 했어라우. 한번도 딴사람허군 살아본 적이 없다고

않았을까’ 하고 나름대로 추측하고 있다.

- 9) 최명희의 <혼불>은 남원 방언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라우, -다요, -ㄸ디여?’가 쓰이고 있다.
그게잇 거이 머언 약이 되야라우?
머 잘난 사람만 사랩이랍디여?
하얏따, 머, 그런 말도 못허고 산다요?

했지마는 검댕이에서 사팔뜨기와 살았지요. 이름이 정말 사팔뜨기여라. 아버가 어려서 장터에서 데려왔는데 내가 두 살 위였지만 그런 것 안 따지고 그냥 지냈지라. 뽀뽀한 정을 주지도 않고 그타고 정나지도 아니게 그냥 그렇게 살았지라. 뭘 작정이나 어디 있었남요.

— 신경숙, 『풍금이 있던 자리』, 1992, 117-118쪽

4.1.2. 전남 방언의 부사 ‘무단시’

윤홍길의 작품에서는 전남 방언인 ‘무단시’가 자주 보인다. ‘무담시, 무단시’는 주로 전남에서 많이 쓰는 어휘로 표준어 ‘괜히’의 의미인 ‘공연히, 아무 까닭이나 이유가 없이’를 나타낸다. 전북 출신 채만식의 작품에서는 ‘무단시리’를 쓰고 있다. 윤홍길, 최명희의 소설에서 전남 방언 어휘가 많이 보이는 것은 소설에 나타난 언어가 전남과 접촉하고 있는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어 ‘무단히’는 ‘무단(無斷)하-’에서 파생된 것인데 ‘무단’은 ‘사전에 허락이 없음. 또는 사유를 말함이 없음.’이란 뜻이다. 따라서 ‘무단히’가 구개음화하여 ‘무단시’가 되고 다시 ‘무담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기타 방언형으로 ‘무단시, 무단시리, 무다이, 무담씨, 무담씨, 무단히’가 쓰이고 있다.¹⁰⁾ (이태영, 1997참조)

“(김부월)내 말이 바로 그말이여, 이 버꾸야! 백 년 만에 한 번 나올지말지 현 기막힌 귀경감이 될 판이니 우리가 무단시 왜 저 작것들한테 쫓겨로 눈요구를 시켜줘야 되야? 곧 죽어도 그러기는 싫으니깐 인적 없는 구석으로 싸게 자리를 뽀겨뽀자, 그런 말쌈지여!”

— 윤홍길,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1997, 1, 15

“무담시 당신이 고상하시게 생겼구만요.” 대문까지 따라나온 아내가 주눅든 것 같은 소리로 말했다.

— 조정래, 『태백산맥』, 2001, 1, 163

10) 박경리의 ‘토지’에 ‘석이 아버지 정한조라는 사람이 조참관 꼴이 보기 싫어서 진주 땅에 자릴 잡을라꼬 작정하고서 식솔을 데리고 평사리로 갔었는데 무담시 아무 죄도 없이 죽은 것은’의 예가 보인다.

“이 사람아, 자넨 무단시리 치어죽구 싶은가?”

— 채만식, 『金의情熱』, 1987, 489

나 듣는 연애나 말허까, 무단시 비암맹이로 그 방정맞은 셋바다 조계 날롱거리지 말란 말이여.

— 최명희, 『혼불』, 1996, 1, 263

4.2. 고향과 방언의 역할

이 작품의 두 주인공인 ‘김부월’과 ‘임종술’의 대화는 전라 방언과 정읍 방언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작품과 달리 대화문이 큰 위치를 차지하는 이 소설에서 작자는 다른 소설에서와 같이 악역을 맡긴 사람에게 현실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형적인 악역 캐릭터의 성격을 창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작자가 말한 대로 ‘바보같은 인물’을 창조하면서도 ‘해학적인’ 모습을 보이려 하는데 이를 돕고 있는 것은 바로 두 주인공이 자유롭게 쓰고 있는 전라방언이다. 방언은 문학이 갖는 ‘해학적인 기능’을 돕는 기능을 갖는데 이 작품에서도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기 고향의 언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고향은 모든 과거의 허물을 용서하는 장소이고, 고향의 언어는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용서하는 데 사용하는 매개수단임을 분명히 한다. 이것은 방언이 갖는 기능인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기능과 관련된다.

1권 274쪽 지문에서 고향에서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두 남자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널금저수지 양어장 감시원임을 나타내는 완장이란 물건에서 비롯된 두 사람 사이의 해묵은 유감이 그럭저럭 녹어지는 순간이었다. 당초부터 아예 있지도 않은 일인 양 말끔히 해결될 수는 없는 적대관계였다. 하지만 부월은 부월은 한바탕 요란한 너털웃음 끝에 새삼스레 약속까지 나누는 두 사람을 보면서 오랫동안 자신들의 귀향길을 가로막고 있던 걸림돌 하나가 슬그머니 치워졌음을 실감했다.

— 윤희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1997, 1, 274

1권 280쪽 지문에서 ‘용서’가 나온다. 태인택의 욕설은 일반적인 언어의 관

점에서 본다면 아주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방언이 주는 이면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쉬움의 표현, 서운함의 표현이지 결코 무지막지한 욕설이 아닌 것이다. 반어적인 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방언은 사람 사이의 앙금을 해소시키고 용서하게 하는 매개물인 것이다. 우리가 방언에서 사용하는 비속어를 글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면의 의미 때문이다.¹¹⁾

“(김부월)요 마당에 이년 입주탱이가 바작만헌들 무신 소용이것소. 참말로 유구하고도 무언이요, 업니”

“(태인택)인간 같지도 않은 년! 금수만도 못헌 년!”

거듭되는 사과에도 불구하고 태인택은 연거푸 혐구를 들이댔다. 하지만 그녀는 막심불효를 저지른 몹쓸 수양딸을 어엿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접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마음으로 용서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어찌면 자신의 패물을 훔쳐 야반도주한 수양딸에 대해 애당초 분노나 원망 따위를 품은 적조차 없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떨리는 목소리와 질척질척 젖어 있는 눈자위가 그 증거였다.

“(김부월)반분이나마 풀리게코롬 업니, 내 머리끄덩이를 외락와락 쥐어뜯으시오. 내 살점을 찢어가꼬 내 낮판대기를 실컨 할퀴시오.:

— 윤홍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1997, 1, 281

“(태인택)미친년!”

불그스레 핏발이 선 눈으로 태인택을 바라다보면서 부월은 어느새 또 재벌 울음을 장만하기 시작했다. 태인택은 방금 전에 제 손으로 매몰차게 물리쳤던 수양딸의 푸짐한 몸집을 도로 힘겹게 끌어안으면서 등을 다독거렸다.

“(태인택)왔다는 소식 듣고는 그러잖어도 하마 이제나 나타날까 저제나 나타날까 하고 새복부텨م 눈깔이 짓물르드락 지달리고 있었다, 이년야.”

평론가 정호웅은 『소라단 가는 길』의 해설에서 ‘지난 시절 겪었던 일들, 느낌들의 구체적 실재는 그 경험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언어, 곧 사투리를 통해

11) 예를 들면 전라방언에서 동사나 보조동사로 쓰이는 ‘지랄하다, 먹고 지랄하다’는 글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 못마땅함을 나타내는 뜻을 갖는다.

서만 온전히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방언은 '과거를 불러내는 주술의 언어'이며, '과거 속으로 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작가의 과거와 가족 이야기와 온갖 경험들은 자기가 사용한 방언을 사용해야만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왜 작가는 후기의 작품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에 와서 지문에도 일상어적인 어구를 많이 사용하는가? 윤흥길의 문학적 변용은 여기서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윤흥길은 일상적인 언어로 돌아가고 있다. 지문의 어휘와 문체가 일상성을 띠고 있다. 일상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지문이 단순히 작가의 서술이 아니라, 장면에 대한 리얼리즘의 구현이고, 독자를 소설 속의 현실로 매우 가깝게 안내하려는 배려이다. 표준적이고 인위적인 상태를 벗어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하여 일상적인 삶과 언어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려는 작가의 의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라단 가는 길』에 실린 '작가의 말'을 통하여 보면 윤흥길은 제도로부터의 해방, 기억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여유와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언어 역시 표준어를 벗어나 고향에서 자유롭게 쓰던 일상어를 통해 등장인물에게도 자유로울 기회를 부여하고, 작가인 자신도 자유롭게 마음을 표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해석한다.

왜 채만식, 윤흥길, 최명희 등은 지문과 대화문을 구별한 전통적인 소설 쓰기 방식을 벗어나 일상어적인 언어 특징을 보이는가? 이 작가들에게 표준어와 방언은 구별하기 어려운 우리말인 것이다. 보다 원초적이며 일상적인 우리말을 통해 작가의 미묘한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고 싶고, 시대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싶으며, 어려서부터 써온 방언을 포함한 일상적인 대화체로 자유롭게 써보고 싶은 바람이 있었을 것이다. 문학에서 다루는 일상어와 방언의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홍수(2001), 소설의 방언에 대하여, 『문학과 방언』에 재수록, 역락, 287-309쪽.
- 문금현(1999),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국어학총서 34, 태학사.
- 신경숙(1992), 『퐁금이 있던 자리』, 문학과지성사.
- 윤홍길(1977),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1, 2, 현대문학.
- 윤홍길(2003), 『소라단 가는 길』, 창비.
- 이태영(2004ㄱ), <혼불>에 쓰인 방언의 기능과 등장 인물의 성격, 『혼불의 언어세계』, 혼불학술총서2, 293-340쪽.
- 이태영(2004ㄴ), 문학 작품과 방언 연구, 한국어학 25호, 89-120쪽.
- 이태영(2004ㄷ),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의 기능, 어문론총 41호, 21-55쪽.
- 이태영(2006), 윤홍길의 <소라단 가는 길>에 나타난 일상어의 특징, 국어국문학 142, 31-54쪽.
- 이태영(2007), 문학작품에 나타난 방언검색프로그램(전라 방언 편), 국립국어원.

【Abstracts】

The efficiency and change of language and style used in *pitgaunderogeoreogamyeon* written by Yun heung-gil

Lee, Tae-yeong

The thesis is intended to find out an author's view on language, characteristics of his language and the style he try to express in *pitgaunderogeoreogamyeon* by looking in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al language used in this work.

Yun Heung-gil tends to use such oral language as dialect, fad words, expletives and idioms over all in this novel. It's because he regards the standard language as an artificial language while he thinks of oral language as a natural and free language.

He tries to recur to oral language throughout this novel and Soradanganeungil. dialect enables us to speak out our feeling and obtain a mental peace and gain the identity through an feeling of belongings.

we can see that function of oral language and dialects used in literature is a expression of free minds and acts

keywords : oral language, dialect, natural language, free language

이 논문은 2009년 7월 28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8월 10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